

골목골목 선대위 보도자료

“골목선대위, ‘새똥 치워달라’ 생활 민원부터 균형발전 국가과제까지, 수천 건의 국민 목소리 경청”

제21대 대선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이하 골목선대위)는 전국 방방곡곡, 골목골목을 돌면서 국민 목소리를 경청했다.

추미애 골목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포함한 34명의 권역별 골목선대위원장들이 청취한 국민 목소리는 수천 건에 달했다. 골목상황실은 5.12일 공식선거운동 시작일부터 5.23일까지 약 2주 동안의 국민 목소리를 취합해 정리한 결과, 200여 건의 정책 건의사항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어려운 경제와 민생 여건을 반영하듯 전체 정책 건의사항 중 민생·경제 분야가 30%를 차지했고, 내수진작과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특히 전통시장 등 주요 상권에서 만난 상인과 소비자들은 지역 상품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강하게 전했다.

평소 대도시 중심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펼치는 것과 달리, 농어촌 마을까지 직접 찾아다니는 골목선대위는 농·어촌 주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했다. 정치인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 농·어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낸 결과, 농어업 분야 정책 건의가 전체의 13%에 달했다.

전북권역 골목선대위원장을 맡은 한준호 위원장은 “농어촌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며 많이들 놀라면서도 금세 또 진지하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주신다. 지난 16일 김제전통시장에서 한 어르신은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요구하셨는데, 참으로 맞는 말씀”이라며 “역시 국가 발전의 해법은 민생 현장의 국민에게서 찾아야 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고 전했다.

골목선대위 활동 과정에서 경청한 수천 건의 국민 목소리에는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담겼다. 그 중에는 생활 속 민원들도 많았다. 지난 21일 부산 동구 초량시장을 찾은 부산권역 골목선대위원장인 김영춘 위원장을 만난 상인들은 시장 지붕 아케이드에 비둘기 배설물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전하기도 했다.

김영춘 위원장은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상인들께서 아케이드에 비둘기 배설물이 많이 묻어 보기가 좋지 않다는 민원을 전해주셨는데, 생활 속의 작은 불편함도 모두 해소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지금의 간절함 그대로 새 정부가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골목선대위는 공식 선거일 전인 6.2일(월), 추미애 위원장이 그동안의 골목 선거운동을 통해 경청한 국민 목소리와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골목 수첩을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될 국민 목소리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골목 수첩이 국정운영의 훌륭한 이정표이자, 초심을 잃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남은 선거운동 기간 전국 방방곡곡, 골목골목을 돌며 더 많은 국민 목소리를 듣고 후보에게 전달하겠다” 고 전했다. <끝>

[붙임 1] 주요 활동 현장 사진



2025.5.21.(수) 부산 동구 초량시장에서 시장 아케이드에 비둘기 배설물을 치워달라는 민원을 경청하고 있는 김영춘 위원장



2025.5.16.(금) 김제전통시장에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정책 필요성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는 한준호 위원장



2025.5.26.(월) 경기도 남양주에서 한 시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적고 있는 김원이 의원 (우측은 김원이 의원의 골목수첩 기록 내용)

